

**특우 컬럼**

심장에는 암이 없다

의사가 내게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항상 끊임 없이 움직이고, 뜨겁기 때문이란단다. 심장은 끊임없이 피를 보내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암이 자랄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한 단어가 떠올랐다. '열정'.

이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스며들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내가 귀가 따갑도록 강조했던 ‘열정’이 결국 우리 삶 속에 암이 자리 못하게 하는 힘인 것이다.

맞다. 에디슨이 발명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에게 ‘포기’라는 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암은 자리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뜨거운 열정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앞에서도 낙담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 것 아니겠는가(로8:35). 나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은 적이 없다. 그 열정이 있기에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의 길을 지치지 않고 40년 넘게 온 것이다.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열정으로 계속 뛰고 있다면,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 그러나 열정이 멈춘 삶과 신앙은 의심과 낙심, 그리고 유혹이라는 암세포들이 자라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

심장이 쉬지 않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뜨거운 신앙 앞에 감히 약한 것들이 들어오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멈추지 않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헌신, 그 열정을 유지하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심장처럼, 우리 믿음이 계속 뛰게 하라. 그리고 매사 열정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 영·혼·육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3:15).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지휘봉을 뺏어야 합니다.”

멕시코(Mexico) 살띠요(Salttillo)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뜻을 박듯이 강조
하신 말씀이다.

오전 10시에는 목회자세미나가, 저녁 8시에는 집회로 진행되었다. 성전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은 야외에 설치된 LED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둘째날 저녁집회에는 귀신들이 처처에서, 2층 꼭대기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고, 목사님뿐 아니라 까를로스(Carlos) 목사, 큰사위 다니엘(Daniel) 목사, 라구나(Laguna) 목사, 오스칼(Oscar) 목사, 엑토르(Héctor) 선교사 등도 단상에서 함께 귀신을 쫓았다. 까를로스 목사 교회 부목사를 비롯한 임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침표가 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의 가장 압권은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했다는 씬시아 쏘토(Cinthia Soto)라는 자매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갑자기 펄펄 뛰며 단상을 헤집고 다니는 장면이었다. 씬시아 자매는 뛰다가 마치 허리가 괜찮은지 확인하듯이 허리를 돌리고 흔들어대며 춤을 추기까지 했고, 목사님을 자기가 타고다니던 휠체어에 태우고 신나게 달리는 장면에서는 장내가 떠나갈 듯이 환호성이 터졌다. 더 무슨 말이 필요 없었다. 소름이 끼쳤다. 마치 그렇게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잔뜩

“게으른 참모는 CEO의 이빨에 초를 뿌려 다 삭게 하고, 눈에 연기를 뿌려 앞을 못보게 한다고 잠언 1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 일한다는 사람이 게으르다면 그 단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점점해서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그의 지휘봉을 뺏어야 합니다. 점점하지 않는 지도자는 게으른 것이요, 그는 망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잠언에 누누이 강조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남을 다스리나, 게으른 자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고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 고 말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가 싫으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던가요. 오늘 당장 점점하세요, 스스로도 점점하세요. 변



2025 멕시코 쌀띠요 집회 광경

런 광경을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권세있는 새교훈'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가복음 1장의 장면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듯, 사도행

올라올 때 베드로가 전능의 하나님 앞에
무너져내렸던 장면이 떠올랐다.

썬시아 자매는 남편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크게 소리치듯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장면에는 또 모두가 함께 기쁨의 눈물로 감사했다. 하나님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목회자세미나 역시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한 그들은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전술했듯이 목사님은 둘째 날 세미나에서 게으른 자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목회뿐 아니

화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목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까를로스 목사는 20년 넘게 기도한 것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기뻐
했다. 목사님은 힘을 합해서 신축되는 몬
테레이(Monterrey)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집회를 열어보라고 격려했고, 그 역
시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했다.

쌀띠요 집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
루야!

한은택 목사



성전이 가득 차서 야외에서
LED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휠체어에서 일어나 뛰고 있는 씬시아 자매



목회자세미나에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려는 참가자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5~20)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8~20).

위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遺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며, 중요한 요청입니다. 부모의 유언도 귀히 여겨 반드시 지킬 것인데,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그 유언을 받아들여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바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숨어있었습니다(요20:19).

그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연장 없이 일 못하고 무기 없이 못 싸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전파의 시초이고, 그것은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유언은 흐지부지 사라졌을 것입니다만,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유언은 살아있는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고전15:14~15).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겁쟁이들이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행2:32).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가던 비겁한 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위협에도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4:20)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행4:2)입니다. 그는 그 도를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시자(고전15:7) 그는 확고한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

했습니다. 또한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 믿을 수 있다던 의심 많던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요20:28)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행9),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온갖 핍박과 모함에도 불사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목회 초에 제가 운영하던 인복유치원 옥상에서 하늘 문이 열리며 예수님을 봤습니다. 내

가 직접 봤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

의 소식을 그저 말만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봐서 믿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전한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힘이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더욱이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전2:4~5).

오직 전도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당장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

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8~49).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자고로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요4:48).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신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봄으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지난 주에 멕시코 살티요 집회 광경

을 보셨지요? 거기서 못 걷던 자가 걷고, 호흡기를 달고 살던 자가 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을 하며, 못 듣고 말도 못하던 자가 듣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 기사와 표적을 본 살티요 시민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20).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꾼에게 연장을 주지 않고 일하라고 하면 나쁜 주인입니다. 군인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면서 전쟁터에 내보내면 나쁜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연장이요, 무기인 성령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

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신 후에 일하셨습니다(막1:9~10).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 어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10:38).

그래서 보여주는 목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내어 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7~8)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부활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병든 기업이 다시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될 때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연결고리입니다. 부활은 곧 성령 시대를 여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한 자는 부활을 믿는 자를 넘어 부활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도하게 하여 만천하에 전합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5~1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현실 정치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기도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현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박국은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사실은 명확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앗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앗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정치적 상황이나 개인의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믿음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기 보다는 우리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의견과 선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정치적 선택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점과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분쟁이 아닌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렘3:18)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상화평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 생명의 말씀 ::

나에게도 광채가 있을까?

마땅히 행할 바

언젠가 금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의 빛이 우리에게서 더욱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

1900년 중국 청나라에 의화단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복청사변이 일어났다. 이 사변을 일으킨 농민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부청멸양(扶清滅洋)’을 외치며 외국인 세력을 배격하였다. 그들은 특히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기독교인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광채가 있었고, 이 광채로 그들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그 험한 시대에 박해를 위한 구분이었지만 기독교인의 얼굴에는 남다른 광채가 있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광채가 있을까? 누가 그 얼굴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기쁨이 흐르고 있을까? 말을 달리하지 않아

도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광채가 있을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다(출34:35). 모세만이 아니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다. 주를 대면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나 광채를 입는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출 수 없게 만든다.

압박 나무에서 야곱도 그랬다. 야곱은 홀로 어두운 밤 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하였다. 그때 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창32:30~31).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게 된 야곱에게는 찬란한 광채가 비추었다. 야곱은 비록 절게 되었지만, 그에게 임한 광채로 능히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봄이 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형색색의 꽃들이 온 땅을 찬란하게 수놓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자.

이정금 전도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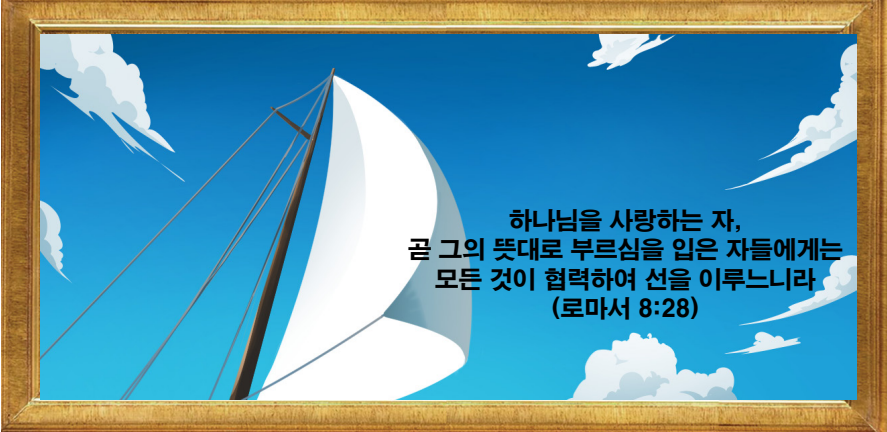
최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한편에는 이 아이를 잘 품고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아이를 품은 여성으로서 엄마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 가정의 재정 등 마음이 바쁘고 번잡하여 해결해 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랑은 촬영 감독이라 직업의 특성상 연출 감독의 지명이나 콜이 있어야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작품의 오퍼가 들어와도 계약 성사 직전에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저 마음속에 근심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득 채운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

는지,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부터 습관처럼 기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ய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목사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던 말씀이었지요. 걱정될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차있던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고군분투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김경현



:: 생명의 말씀 ::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대상12:32).

변화하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다. 시대변화를 빠르게 읽고 정복하여 활용하되, 마땅히 행할 것 위에서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가치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며, 선택의 원리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권위’의 중심이 이동했다. 그나마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다가 급기야 성경을 폐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더 이상 성경의 명령들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작동하지 않고, 여러 고대 종교 경전들 중의 하나로 전략해버리고 말았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같이 존재한다는 성경적 가치관이 권위를 가졌었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영적인 것은 없고 물질이 전부라는 사상이 주류가 되어 과학이 비로소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더 많은 사상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과학주의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이 현실을 규정하는 시대이다. 인간(나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물리적인 사실관계까지도 인간의 생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내 생각이 규정하면, 나의 생물학적 성별까지도 바꿀 수 있기에 사회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바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이제는 인간에게로 이동해버렸다.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첨단기술을 인격화, 신경화시켜 인간과 결합하여 일명 ‘하나님 놀이’, ‘하나님 행세’를 하려한다. 그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는 무너진다. AI기술은 선교적인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그 이상을 대신하는 이상화 작업은 절대 안 된다. 시세를 알고 적극 활용하되, 마땅히 행할 바로서의 성경 말씀의 명령 앞에 다시 서야 한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넘어지고 만다. ‘예수중심’의 신앙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송지화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 빛이 되리라 ::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흔적

최근 직장동료 두 명이 회사를 떠났다. 직원이 회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지만, 이번에 회사를 떠난 두 사람에 대한 주변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라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명은 다른 직원들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주던 직원이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출근일에 찾아와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었고 아쉬움을 함께 나누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이직 소식에 팀 동료들이 몰래 두 손을 번쩍 들고 쾌재를 불렀다

고 한다. 그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업무태도에 주변 평판이 바닥이던 직원이었다. 혹여 사직서를 무릎까 봐 그의 마지막 출근일까지 주변 동료들이 조마조마했다는 얘기마저 들려왔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사자성어처럼, 만나면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이치다. 앞서 말한 두 명의 사건은, 가족, 교회, 직장 등 내가 속해있는 다양한 공동체부터,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머물다가 떠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목사님은 ‘내가 떠난 자리에 향기를 남

기고 가라’ 하셨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도 있듯이,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남기신 향기는 잠시도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진하게 남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머무른 자리도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전호정 집사
rockerjhj@naver.com

:: 한국교회사 ::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

사무엘 오스틴 마펏 선교사(마포삼열, 1864~1939)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방의 복음화에 40년을 헌신한 선교사이다.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여 최초 장로교 목사 7명을 육성하였고, 숭실대학교 학장으로서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몸소 실천한 초창기 한국의 위대한 선교사이다.

1864년 미국 인디애나주 메디슨에서 출생하여 1888년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신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1년간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여 1890년 1월 26세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했다.

한국 도착 후 3년간 서울에 거주하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였고, 틈틈이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을 순회 방문하였다. 1890년 한국 도착 직후 아펜젤러와 헬버트의 평양 순회 전도활동(한달)에 참여하였고, 1891년에는 게일, 서상륜과 함께 3개월간의 2차 전도여행으로 평양, 의주 및 중국 봉천까지 다녀왔다.

1차 선교여행 때 마펏은 평양의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여관 벽이 한문 성경으로 도배된 것을 발견하고, 벽에서 성경을 떼어내어 별도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장대현교회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이 여관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관 주인 최치량은 평양 복음화에 앞장선 인물이 되었다.

그는 전도여행 도중 서북 지역에 선교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선교할 지역으로 결심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 평양 선교지부 설치를 건의하였다. 1893년 마침내 평양에 선교지부 설치가 허가되면서 그는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평양 널다리골에 가옥을 구입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평양 장대

현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는 노방전도와 사랑방 전도를 실시하여 성도가 증가하였고, 1899년 평양 시가지가 보이는 장대현 언덕에 예배당을 건립하고 초대 담임목사가 되었다. 장대현교회는 성도가 늘어남에 따라 산정현교회, 남대현교회, 사창골교회의 개척을 지원하였으며, 평양 대부흥의 시발지가 되었다.

마펏 선교사의 평양 전도 활동에는 많은 수난이 있었다. 노방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강박 이기풍에게 두 번의 수난을 당했다. 장대현교회 건축을 하던 중 이기풍 일당이 찾아와 훼방하였고, 두 번째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도중 이기풍으로부터 습격당해 턱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든든한 한국인 동역자가 있었기에 평양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백홍준, 김성집, 한석진, 서경조, 최치량 등이 그의 진실한 동역자였다.

마펏은 조선사람들을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다. 그는 선교여행 시에는 조선사람들과 숙식을 같이하고 사랑방을 돌면서 그들을 사귀려고 노력하였으며, 조선의 예법까지도 익히고 특히 한국 음식을 즐겨 먹었다. 그는 어디 가든지 한국인처럼 친밀감을 느끼게 했는데 이런 그를 조선 사람들은 ‘마포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처럼 따랐다.

평양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인 사역자의 양성이 필요했다. 마펏은 1901년 평양 서문 밖에 6천여 평의 부지를 구입하여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였고, 1904년부터 초대 교장이 되어 24년간 4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07년 첫 졸업생으로 7명이 배출되어 최초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다.

마펏은 교육 사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사역하였다. 1903년 숭의여학교를 설립하였고, 1918년부터 10년간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시무하면서

일본의 압제에 맞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양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3·1 운동 후 총독부의 성경 과목 폐지 주장에 끝까지 맞서 싸웠으며, 성경 과목을 중지하기보다 차라리 폐교를 결정하였다. 그 후 평양신학교는 1952년 전쟁 중에 대구에서 다시 개교하였고 이후 서울로 이전하였다. 1960년 교단 분리로 인해 현재 장신대(통합)와 총신대(합동)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는 우리 민족의 독립 활동에도 이바지하였다.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나자 맥쿤, 에비슨 등과 함께 이 사건은 날조된 것이며 비인도적 방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미국 장로교에 보고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데 힘썼다. 1919년에는 장로교 8대 총회장을 맡아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을 찾아와서 오직 조선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쏟았던 마펏은 1934년, 70세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로부터 은퇴하고도 계속 조선에 머물면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다가 1936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었다.

1936년,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1939년 10월 24일 75세로 소천하였다.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으로 2006년 5월 장신대 캠퍼스에 그의 유해를 이장하였고, 현재 장로교 신학대학교 내 마펏 기념관이 있고 그를 기리는 좌상이 세워졌다. 그는 한국을 떠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에 초석을 놓았고 기독교 교육과 신학 교육, 목회자 양성에 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다.

김종춘 목사
kkd9191@hanmail.net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자

올해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복을 받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해이다. 과거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복이란 그저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준비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이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실 거라 생각한다.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전대미문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안정된 상태, 즉 우리 영·혼·육의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올해는 전에 없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올해 나의 목표 중 하나는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두 시간 이상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이것 자체로 이미 전대미문의 영적 축복을 받았다고 느낀다. 과거 어떤 때보다 매일 더 많이 기도하니 말이다.

이런 영의 축복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육의 축복, 즉 건강의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대 초 가장 건강할 때의 체력과 기력을 달라고 기도한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 올해 초부터 러닝을 새로 시작해 수영과 함께 1주일에 5~6일은 꾸준히 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늘어가는 체력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해 4월에 생애 처음으로 5km 마라톤에 출전하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완주하게 되었다. 잘 뛰는 분들이 보기엔 짧은 거리이겠지만,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마라톤을 꿈꾸고 도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올해 전대미문의 축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침저녁 기도하고, 저녁마다 노량진 기도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뛰기 싫지만 그래도 나가서 3~5km를 뛰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올해는 편안한 내 삶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전대미문의 영·혼·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함께 달려나가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춘계 산상집회

날짜 : 4월 28일(월) ~5월 1일(목)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 02.533.9191